

<2017년 2월 22일 수요말씀>

죄가 있으면 ‘할 일’이 안 보여서 못 한다
죄에도 의에도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회개하여 ‘죄의 짐’을 벗어 버려라

본 문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이번 주 주일에는 ‘**하나님이 택했으니 귀중하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돌도, 나무도, 건물도, 인생도

〈사람이 보는 차원〉과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지요?

예수님도 〈종교 전문가들〉이 볼 때는 ‘버리는 돌’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품 인생’ 이니,

이를 깨닫고 〈자신〉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 주신 생명들〉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 ◎ 주일에 충분히 말씀했으니 나머지는 ‘새벽 잠언’ 으로 전해 주고,
오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 ◎ 2월 9~11일 새벽에도 <죄에 대한 잠언>을 전해 줬습니다.
오늘도 <죄에 대한 말씀>을 더 전해 주겠습니다.
- ◎ 현재 교육국에서 <죄에 대한 책>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해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한 책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도 추가해서 넣기 바랍니다.
- ◎ <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이니, 잘 듣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

- ◆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에 대해 알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도 깨달아야 ‘죄지은 것’을 알게 됩니다.
- ◆ 자기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래되면 생각이 안 납니다.
고로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 ◆ 그러므로 먼저 -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생각나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죄’에 대해, ‘불의’에 대해 고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 <자기 할 일>이 깨달아지지 않고 실천해지지 않습니다.

- ◆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은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 ◆ 구시대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불신했습니다.

고로 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 더욱 불신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가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일’을
못 보게 되었고,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안 믿고, 외면하고, 불신하고, 핍박까지 한 것입니다.

- ◆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일에 해당되는 일>을 못 보게 됩니다.

- ◆ 저마다 <어떤 죄>든지 자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그제야 <자기 할 일>이 보입니다.

- ◆ <잡초>가 무성하면 ‘어린 곡식’이 잘 안 보이지요?

<잡초>를 깨끗이 없애야 <곡식>이 보이듯이,
<죄의 잡초와 더러움>을 회개하여 깨끗이 없애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보입니다.

◆ <의의 권세>가 있듯이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 <의>를 행하는 대로 ‘의의 권세’가 따라와
<의를 행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죄>를 짓는 대로 ‘죄의 권세’가 따라와
<죄>가 자기를 움아매고 <죄>에 당하게 됩니다.

◆ <마약>이나 <술>을 먹으면
자기 생각과 몸이 그 영향을 받게 되지요?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자기 생각도 몸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더 죄를 짓게 됩니다.

◆ 죄를 회개하면 ‘죄의 영향’을 안 받고
‘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를 열심히 행해라.

그러면 <의의 힘과 능력>이 솟아나고,
나 성령과 주가 함께하여
<의에 대한 생각>이 나서 자꾸 <의>를 행하게 된다.”

◆ <곡식>이 ‘잡초’ 때문에 제대로 못 크듯이,
<자기 육과 영>도 ‘죄’ 때문에 제대로 못 큼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함으로 ‘의의 힘과 권세’를 받아서 <자기 할 일>을 해야

자기 육과 영이 아름답고 빛나게 크고 의롭게 변화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이번 말씀은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통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영상1>

◆ <죄>는 짓는 만큼 ‘짐’ 이 됩니다.

고로 <죄의 짐>을 지면, 무거워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개할 때까지

<죄의 짐>에 걸려서 ‘좁은 생명길’ 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는 ‘넓은 사망길’ 로 가야 됩니다.

◆ <생명길>은 ‘한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길’ 입니다.

고로 <죄를 회개하여 죄의 짐이 없는 자>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 보따리, 죄 짐’ 을 지어서

‘좁은 생명길’ 로 가지 못하고,

‘넓은 사망길’ 로 돌아서 천천히 갑니다.

회개하면, ‘죄 짐’ 을 벗고 ‘생명길’ 로 들어와 가게 됩니다. <끝>

(*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보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영상2>

◆ 죄를 지으면,

사탄이 ‘죄의 짐’ 을 움켜쥐고 <사망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 영혼은 ‘죄’ 때문에 힘없이 끌려갑니다.

사망의 세계로 가면,

사탄이 그 영혼을 ‘사망의 죄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본인이 회개하든지,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하여 회개해 주든지,

주가 용서하고 이끌어 오든지 해야 풀려 나오게 됩니다. <끝>

◆ 죄를 회개하면, 사탄과 싸울 것 없이 ‘사망’에서 나오게 됩니다.

◆ 가령, 자기가 형제에게 잘못했다 합시다.

그때 형제와 다투거나 싸우게 됩니다.

이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형제와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지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안 하면 계속 싸우게 되고,

그 잘못으로 인해 상대가 힐문하고 조건을 붙여 행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그러합니다.

즉시 회개하면, 영적으로 더 이상 ‘사탄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 고로 죄를 지으면 미루지 말고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즉시 씻어 버리듯

즉시 회개하여 씻어 버려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 자신도, 보는 자들도 <죄인 취급>을 하고,

- 죄의 짐이 무거워서 <자기 할 일>을 하며 뛰지도 못하고,

- 죄의 짐 때문에 걸려서

<자기 한 명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생명길>도 못 잡니다.

- ◆ 죄를 지었다고, ‘죄 있는 세상’ 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죄의 세계’ 에서

<죄>를 ‘생활’ 처럼 여기며 살게 됩니다.

- ◆ “죄지은 몸이니 이제 끝났다.

한 번 죄를 지으나, 두 번, 열 번 죄를 지으나 뭐가 다르냐.

나는 이미 죄지은 몸이 되었다.” 하면서,

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계속 죄를 짓고 살렵니까?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여 죄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가 주는 마음’ 이며 ‘성령이 주는 감동’ 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 입니다.

회개하면 즉시 ‘사망’ 에서 벗어나고,

죄의 짐을 벗고 ‘생명길’ 로 나오고,

가벼운 몸과 마음과 영으로 ‘자기 할 일’ 을 하게 됩니다.

<전환>

◎ 이제 다른 방향으로 ‘죄’ 에 대해 더 말씀하겠습니다.

- ◆ 사람은 <뇌>가 흥분되면,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몸의 신경 세포>까지 흥분되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 를 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 ◆ <선한 것>에 흥분되어 거기에 빠지면

‘평소에 할 수 없는 선하고 의로운 일’ 도 하지만,

<선을 벗어나 불의한 것>에 흥분되어 거기에 빠지면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불의한 일’ 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 ◆ 어떤 사람은 혈기와 분노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순간 <몸과 마음과 생각>이 ‘불의’ 로 쏠려서 사람을 때리고, 상처를 주고,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여 결국 ‘중신형’ 을 받고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 혈기와 분노로 순간 흥분되어 행한 일>로 인해 20년, 30년, 40년, 혹은 평생 고통을 받고 삽니다.

- ◆ 불의나 혈기에 울분을 터트리거나 흥분하면 안 됩니다.

순간 혈기가 끓어올라 울분하면, 순간 ‘분별력’ 이 떨어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각종 불의한 행위’ 를 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가면 도둑질, 살인, 강간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짓값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불의를 행한 시간의 만 배, 혹은 수백만 배까지 받습니다.

- ◆ 어떤 사람은 순간 흥분되어 40~50초 만에 금품을 털었는데, 그로 인해 4~5년 형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불의를 행한 시간의 300만 배 이상 짓값을 받고, 감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 ◆ <불의>에 흥분하고 울분을 터트리 1분, 혹은 2분, 혹은 3분 만에 ‘순간 행한 일’ 로 인해 10년, 20년, 30년 형, 혹은 중신형을 받게 됩니다.

1~3분 동안 행한 일로 인해

1년 형을 받으면 50만 배의 죄값을 받는 것이고,

10년 형을 받으면 500만 배의 죄값을 받는 것이고,

20년 형을 받으면 1000만 배의 죄값을 받는 것이고,

30년 형을 받으면 1500만 배의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 ◆ <육신>도 ‘땅’에서 죄값을 받지만,
그 <영혼>도 ‘영의 세계’에서 죄값을 받습니다.

1~2분 만에 살인을 했는데,

<육신>은 수백 배의 죄값을 받아서

20~30년 형,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살고,

<영혼>은 수학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 ◆ <죄값>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 ◆ 섭리인들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잘하다가도

감사하지 못함으로, 혹은 서운함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순간 ‘불의’나 ‘이성’에 흥분되어 죄를 짓습니다.

그로 인해 ‘수백만 배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 ◆ <불의>에 흥분되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행하면 안 됩니다.

- ◆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꼭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죄의 주관권’에서 벗어납니다.

<죄인>에게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의>에 흥분되어 ‘주의 뜻과 생각’으로 행해야 됩니다.

순간 <의>를 행했는데,

어떤 것은 ‘행한 시간의 수백만 배의 대가’를 받고,

영으로는 ‘영원히’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 ◆ 기도하며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몇십 초** 통하고,
그때 ‘응답’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성전>도 샀고 <갖가지 보화>도 찾았습니다.

- ◆ 어떤 일을 두고 **10분** 기도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로 인해 ‘평생의 보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 ◆ **20초**, 혹은 **1분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어드렸더니,
그 영향으로 ‘**일생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행한 일**>로 인해 ‘**3000만 배 이상**’의
시간적 혜택을 받았고,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 ◆ 조은이를 전도할 때도 ‘**몇십 초**’만에
성령과 성자와 함께 ‘극적인 말씀’을 순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몇십 초**’로 인해 전도되었고,

조은이는 ‘평생 삼위께 귀히 쓰이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혜택을 ‘육적으로 선생 살아 있을 때’ 만 따져도
투자한 시간 ‘몇십 초’ 로 인해 시간적 기쁨의 대가를
31,536,000(삼천 백 오십 삼만 육천)배 받은 것입니다.

- ◆ 이와 같이 ‘의’ 를 행하면,
<육적>으로는 ‘자기가 의를 행한 시간의 수천만 배’ 를 받고,
<영적>으로는 계산하지 못하게 ‘영원히’ 받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갚아 주십니다!

- ◆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행해라!

그리하면 그 행위에 따라서 ‘축복’ 을 준다.

투자한 시간의 2000만 배, 1조 배, 영원까지 축복을 주리라.”

- ◆ 하나님과 성령님이 명하신 대로
몇 분 더 빨리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지키니 ‘오늘 이 말씀’ 을 주셨고,
이 말씀을 ‘섭리인 모두’ 에게 전해 주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 ‘평생 혜택’ 을 받게 되었고,
이 말씀이 ‘섭리역사 1000년 동안 혜택’ 이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같은 혜택이 오니,
모두 ‘실천’ 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순간 불의로 흥분되어 행한 것>이

육신 수년, 수십 년, 평생, 영혼 영원까지 고통을 받게 합니다.

운전할 때도 ‘순간 몇 초’ 졸았는데,
사고가 나서 ‘평생 불구’ 까지 되고 ‘죽기’ 까지 하니
<순간의 행위>로 ‘수천만 배, 수억 배의 대가’ 를 받게 됩니다.

◆ 불의에 흥분되어 실수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 를 받느라
<갈 길>을 못 가고 <자기 할 일>을 못 합니다.

◆ 인생들은 무지로 ‘죄’ 를 짓고 ‘짓값’ 을 받습니다.
그 짓값으로 ‘일생 동안’ 고통 중에 살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 하나님은 ‘메시아’ 를 보내어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고 ‘생명의 말씀’ 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시고,
무지에서 벗어나 ‘죄’ 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를 따라서 ‘의’ 를 행하게 하여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육 일생’ 동안 축복을 받고,
그 ‘영’ 을 변화시켜 천국에 오게 하십니다.

◆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만나 ‘죄를 회개’ 하지 않으면
<육신>도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 대가’ 를 받고,
그 <영혼>도 ‘육신이 지은 죄’ 를 따라서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쫓값’ 을 받게 됩니다.

- ◆ 어느 종교든지 ‘죄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 지옥>을 면치 못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 ◆ <죄를 대속할 자>가 없으면, ‘종교’ 가 아닙니다.

이단과 우상 종교는 ‘죄를 대속할 자’ 가 없으니,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 ◆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가 없는 곳>은 ‘물 없는 세상’ 과 같습니다.

물 없는 세상에는 ‘생명’ 이 존재하지 못하듯이,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없으면 ‘영의 생명’ 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말씀 마무리>

- ◆ <자기 의로운 행위>로 인해 ‘수백만 배 의의 대가’ 를 받고,
<자기 불의한 행위>로 인해 ‘수백만 배 불의의 대가’ 를 받습니다.

- ◆ 메시아가 긴긴 시간을 두고 ‘세상의 죄’ 를 청산해 주면,
그 대가 역시 ‘투자한 시간의 수백만 배 이상’ 을 받게 됩니다.

- ◆ <불의와 혈기>로 흥분되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에 흥분되어 살면서,
<죄>를 지었으면 꼭 회개하여 주께 나아가 해결해야 됩니다.

- ◆ 감옥에 가지 않은 자들도 밖에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쫓값’ 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었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감옥에 안 갔거나,
세상 법에 걸리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죄값을 물지 않아도
하나님은 ‘각자 행위’ 대로 ‘죄로 볼 것’ 을 ‘죄’ 로 보시고,
스스로 말과 행실로 회개할 때까지 ‘그 대가’ 를 받게 하십니다.

그 대가는 ‘경제’ 로도 받고 ‘심적 고통’ 으로도 받는 등
각종으로 받게 됩니다.

- ◆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육>으로도 <영>으로도 죄값을 받았고,
<시대>를 두고도 4000년 동안 죄값을 받았습니다.

죄지은 시간의 몇 배를 ‘죄값’ 으로 받은 것입니까?
대강만 계산해도 ‘수천만 배’ 입니다.

- ◆ 가인도 순간 혈기를 내고 혈기에 흥분되어
불과 ‘1분’ 만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육신이 ‘6년’ 만 죄값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300만 배’ 받은 것입니다.

또한 <가인의 후손들>까지 ‘살인자 취급’ 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육>으로만 ‘6000년 동안’ 죄값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지은 시간의 수십억 배를 ‘죄값’ 으로 받은 것입니다.

- ◆ 혈기를 내고 울분을 터트리며 생명을 해하지도 말고,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지도 말고,
하늘 앞에 서운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주의 뜻 안에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형제도 사랑, 삼위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으로 다스리면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 말씀 마쳤습니다.